

중급 한국어 교재와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비교 분석 및 개선 방향

- 중급 교재의 읽기/듣기 텍스트와 ‘문화란’을 중심으로 -

유 현 정* (성균관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3.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분석 |
| 2. 연구사 검토 | 4. 결론 |

국문초록

최근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언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능력 중심으로 논의되는 추세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필수적인 ‘문화 이해 능력(cultural literacy)’ 개념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는 한국문화 교육 내용 역시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한국문화 교육의 정체성 및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문화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 구안에 필요한 문화 항목 선정 및 교육 내용 제시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아직 일관된 기준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자의적인 시각에서의 연구물 축적에 머물러 있던 면이 있었다.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이후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보고서’ 및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연구가 이어지면서 한국문화 항목 선정 및 분류의 체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더욱 구체화,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주로 대학기관별로 발간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을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 분석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연구의 문화 항목 분류를 바탕으로 중급 한국어 교재의 읽기/듣기 텍스트와 ‘문화란’에 제시된 문화 항목의 제시 현황 및 체계화 정도를 살펴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선정 및 내용 제시 방식의 보완점 및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 교육에 관하여 실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 항목의 분류 및 항목별 내용 제시 방식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 발간된 교재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간된 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과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문화교육, 의사소통 능력, 문화 이해
능력, 한국어 교재, 문화 항목, 항목 분류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유형별, 내용별로 분류, 분석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필요한 문화 항목의 제시 현황 및 체계화 정도를 살피는 데 있다. 언어교육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

로 논의되는 최근의 추세에 따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문화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교재에 제시되는 문화교육 내용 역시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양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화와 질적인 측면에서의 구체화를 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구성 및 항목별 문화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국문화 교육의 양상을 고찰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및 교재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문화교육 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초기의 연구로 민현식(1996/2004), 김정숙(1997), 성기철(2001), 조항록(2002), 배현숙(2002), 박영순(2003)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것은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문화적 맥락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위상을 넓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의사소통 능력에 필수적인 ‘문화 이해 능력(cultural literacy)’¹⁾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교육을 위한 구체화 단

1) ‘cultural literacy’는 ‘문화 문식성’, ‘문화적 능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의사소통 능력 습득을 위한 언어 교육에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김수진(2010)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송용실(2012)의 ‘간문화(間文化)능력’, 김동환(2009)의 ‘간문화적 언어능력’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아우르는 의미로 ‘문화 이해 능력’으로 표현하였다.

계로서 문화 항목의 범주화에 관심을 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문화 항목 범주화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1>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 분류

| 관점 | 연구물 | 문화 항목 분류 | |
|-------------|-------------|---|--|
| 거시적, 통합적 관점 | 박경자 외(1997) | ① 정보문화 ② 행동문화 ③ 성취문화 | |
| | 배현숙(2002) | ① 상징문화 ② 사회제도를 포함한 일상문화 ③ 가치문화 | |
| | 조항록(2004a) | ① 언어문화 ② 일상생활 문화 ③ 성취문화 | |
| | 박영순(2003) | ① 정신문화, ② 언어문화, ③ 생활문화 ④ 예술문화 ⑤ 제도문화 ⑥ 과학기술 문화 | |
| 미시적, 세부적 관점 | 조항록(2004b) | ① 의식주 문화 ② 역사문화 ③ 민속문화 ④ 사상문화 ⑤ 관념과 가치관 ⑥ 일상생활 문화 ⑦ 제도문화 ⑧ 예술문화 ⑨ 문학 ⑩ 기타 | |
| | 박영순(2010) | ① 정신문화 ② 언어문화 ③ 문학 ④ 예술문화 ⑤ 생활문화 ⑥ 제도 ⑦ 역사 ⑧ 자연과 산업기술 ⑨ 문화재 ⑩ 한류 | |
| | 임경순(2009) | ① 언어문화 | 문학적 및 표현적 언어, 설득적 언어, 제보적 언어 등 문학과 비문학의 언어, 일상의 언어를 망라한 구어, 문어, 다매체 언어 |
| | | ② 생활문화 | 의식주 생활, 여가 생활, 세시풍속, 의례, 지리 등 |
| ③ 관념문화 | | 가치관, 정서, 종교, 사상, 제도 등 | |
| ④ 성취문화 | | 미술, 음악, 영화, 연극, 유물과 유적 등 | |

이렇게 문화를 범주화하고 다시 세부 항목별로 분류해 보고자 하였던 일련의 연구는 한국어 교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화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 정리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연구는 일관된 기준이나 확고한 이론적 토대를 갖지 못한 채 다소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대동소이한 결과를 되풀이하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거시적, 통합적 관점에서 점차 미시적, 세부적 관점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체계화,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교재에 문화 내용을 제시한 경우 단편적 사실이나 정보의 전달에 그치게 되어 그것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문화 항목 분류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강현화(2011)²⁾와 김중섭(2010, 2011)³⁾에서 체계화를 맞게 되었다.⁴⁾ 먼저 강현화(2011)에서는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을 바탕으로 총 723개의 문화 항목을 추출하고 문화 유형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김중섭(2010, 2011)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⁵⁾ 1단계와 2단계 연구에서는 ‘표준’을 ‘한국어 교육의 참조 기준’으로 정의하고, ‘참조 기준’이란 한국어교육 전반에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이자 객관적 기

2) 강현화(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김중섭(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4)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표준 교수요목과 변인별 표준 모형의 개발은 현재 국내 및 국외 교육 기관에서의 비체계적이고 상호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육과정의 등급, 등급 내용, 등급 범주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신설 및 개편되는 교육 기관에서 표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표준적인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 평가 방안 마련의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5) 이하 ‘표준 모형’으로 줄여 씀.

준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⁶⁾ 이러한 ‘표준 모형’의 문화 범주는 강현화(2011)의 문화 항목과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을 분석하여 문화 교육 항목을 추출하였는데, 총 7개의 대분류 항목, 23개의 중분류 항목, 55개의 소분류 항목과 각각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현행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화 항목을 분류해 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실제 수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문화 교육의 개선점 및 보완점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3.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분석

3.1. 분석 교재 선정 및 분석 기준 설정

‘표준 모형’에서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체적인 한국문화 교육 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설계 및 교재개발 시 1)독립된 문화학습 제시 형태, 2)단원 내에서 주제와 통합된 제시 형태, 3)‘알아두기’ 형식의 분리된 제시 형태 등의 다양한 제시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주로 통합교재를 사용하는 대학 부설 한국어과정에서는 문화에 관한 특강이나 보강이 개설되지 않는 한 1)독립된 문화학습 제시 형태의 문화 교재는 주교재보다 부교재로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흔치 않은 실정이다. 대학기관 통합교재의 대부분은 이 중, 2)단원 내에서 주제와 통합된 제시 형태, 또는 3)‘알아두기’ 형식의 분리된 제시 형태 등을 주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로 쓰이고 있는 통합교재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재 내에서 제시되는 듣기/읽기 등의 정보전달 텍스트와

6) 김중섭(2011), 7면.

‘문화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현행 한국어 교재 안에서 문화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어 교재의 대략적인 구성을 살펴본다.

한국어 교재의 구성은 교재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로 1)도입을 위한 시각자료나 대화문 형태의 간략한 텍스트, 2)문법, 어휘, 표현 등에 대한 설명 및 연습, 3)단원별 주제와 관련된 정보전달 텍스트(읽기, 듣기), 4) 정보전달 텍스트의 내용 이해 및 활용을 위한 표현 연습(말하기, 쓰기)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주로 단원 주제와 관련된 문화 내용에 관해 추가적 설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란’을 별도로 배치하는 교재도 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읽기, 듣기 형식의 정보전달 텍스트⁷⁾에 포함된 문화 정보로서의 문화 항목과 ‘문화란’을 통해 전달되는 추가적 정보로서의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구성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구성 및 항목별 내용 제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 단계에서 검증해 보고자 하는 전제는 다음과 같다.

- 1) ‘문화란’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는 교재가 그렇지 않은 교재보다 실제로 문화 항목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
- 2) ‘문화란’의 내용은 한국문화 관련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 3)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듣기/읽기 텍스트 및 문화란의 내용은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을 반영하고 있는가.
- 4) 교재의 급별 문화 항목은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급별 분류에 부합하는가.

위와 같은 전제의 검증을 위한 분석 대상 교재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

- 7) 권성미(2013)에서는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 제시된 문화 항목과 표준 모형의 문화 교육 항목을 등급별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 모형의 문화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 항목과 한국어 교재의 대화 텍스트에 포함된 문화 항목의 목록을 말하기 주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등급별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권성미(2013)의 방식을 참고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 읽기/듣기 텍스트 및 ‘문화란’을 대상으로 표준 모형 항목과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설정하였다.

- 1) 비교적 최근에 발행되거나 개정된 교재로 한다.
- 2) 조건 1)에서 선정된 교재 중 앞서 기술한 전제 1), 2)의 검증을 위하여 ‘문화란’이 있는 교재와 없는 교재를 각각 2종씩 선정한다.
- 3) 분석 대상 등급은 중급(3, 4급) 교재로 설정하였는데, 초급 단계(1-2급)는 주로 기초적인 언어 기능 습득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텍스트의 길이나 수준이 문화 내용의 구체적 전달 수단으로 삼기에 한계가 있고, 고급 단계(5-6급)에서는 교재별로 단위 구성이나 문화 내용 구성의 양상이 더욱 다양화되어 비교의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급 교재는 단위별 내용 구성 방식이 대체적으로 유사하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텍스트에 제시되는 문화 내용도 구체성을 띠게 되므로 교재 간 내용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한 4종 12권의 한국어 교재⁸⁾에서 총 113단원, 464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화 항목을 추출하여 ‘표준 모형’의 항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텍스트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분석 교재 및 텍스트의 수

| 구 분 | 유형 ⁹⁾ 교재 | A | | | | B | | | | 총 |
|-----------|------------------------|-----|----|-----|----|-----|----|----|----|-----|
| | | 가 | | 나 | | 다 | | 라 | | |
| | 급 별 | 3급 | 4급 | 3급 | 4급 | 3급 | 4급 | 3급 | 4급 | |
| 단원 수 | | 18 | 18 | 15 | 15 | 16 | 16 | 15 | 15 | 113 |
| 듣기 텍스트 | | 52 | 52 | 30 | 30 | 16 | 32 | 21 | 16 | 249 |
| 읽기 텍스트 | | 20 | 18 | 15 | 15 | 16 | 36 | 15 | 16 | 151 |
| ‘문화란’ 텍스트 | | 17 | 17 | 15 | 15 | - | - | - | - | 64 |
| 급별 | | 89 | 87 | 60 | 60 | 32 | 68 | 36 | 32 | 464 |
| 교재별 | | 176 | | 120 | | 100 | | 68 | | |

8) 가 : 「서울대 한국어」 3A-B, 4A-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투판즈, 2015.
 나 : 「재미있는 한국어」 3-4,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주)교보문고, 2013.
 다 : 「서강 한국어」 3A-B, 4A-B,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13.
 라 : 「함께 배워요 한국어」 3-4,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 항목의 의미 분류 기준이다. 문화는 그 자체의 의미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의 의미에 있어서도 단순히 어휘적 의미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문화 항목이 속한 텍스트의 내용 안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정확한 의미가 분별된다. 이에 따라 텍스트 내에 등장하는 문화 항목의 의미 분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텍스트 내에서 주제, 기능 및 문법 등의 언어 중심 내용 설명을 위한 부수적 요소, 즉 단순 어휘로만 제시된 것은 제외하고, 해당 항목에 관한 추가적, 설명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면 문화 항목으로 분류한다. ‘지리산’에 관한 대화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예문 (1) (제외) | <p>지 혼 : 아, 미에코.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미에코 : 음, 잘 지냈어. 너는?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 지 혼 : 어, 지리산에 갔다 왔어. 미에코 : 지리산? 좋았겠다. 지 혼 : 너는 뭐 했어? 미에코 : 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방학이 금방 지나갔어.</p> |
| 예문 (2) (포함) | <p>로안 : 앤디 씨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앤디 : 지난 여름에 지리산에 갔던 게 제일 기억나요. 천왕봉 꼭대기에서 내려다봤을 때 온 세상이 구름으로 덮여 있었잖아요. 그 구름바다 사이로 붉은 해가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로안 : 일출이 아름답긴 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밤에 텐트를 치고 잘 때 너무 추워서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어요.</p> |

- 9) 유형별 구분에서 A는 단원 내에 ‘문화란’이 있는 교재, B는 ‘문화란’이 없는 교재임.

‘표준 모형’에서는 한국의 지리 영역에서 한국의 지역별 위치, 기후, 지역적 특징, 대표 지역과 축제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문 (1)에서 ‘지리산’이라는 지명은 방학에 한 일(다녀온 곳)을 이야기하는 활동에서 단순 어휘로 제시되었을 뿐, ‘지리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반면 예문 (2)에서는 천왕봉의 일출, 지리산의 여름 날씨 등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경우 예문 (1)에서의 ‘지리산’은 문화 항목 분류에서 제외하고, 예문 (2)는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두 번째로 단순한 어휘적 의미가 아닌 그 항목이 포함된 내용적 배경 및 맥락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씨름’이라는 항목이 전통놀이의 하나로 설명되어 있다면 ‘표준 모형’의 5급 정보문화의 유형문화재(전통놀이)로 분류되어야 하며, 단오 풍습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면 4급 정보문화의 세시풍속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 한국어 교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인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이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인지, 취미 동호회인지, 취업 준비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포함되는 범주가 달라질 것이다.

세 번째로 표준 모형의 예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항목의 성격이 소분류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되면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표준 모형’의 4급 정보문화에는 한국인의 여가생활 및 친목의 공간으로서의 ‘방’ 문화에 노래방, PC방, 짬뽕방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커피숍 등장 이전의 ‘다방’도 ‘방’ 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네 번째로 일반적인 정보 전달 텍스트 중에서도 그 안에 한국의 특징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문화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기 예보’에 관한 텍스트가 기온, 날씨 등 일반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내용이면 분류에서 제외하고, 태풍, 황사, 단풍, 꽃샘추위 등 한국의 기후적 특징을 포함하는 내용이면 ‘표준 모형’의 2급 정보문화에서 ‘계절에 따른 날씨’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앞의 네 번째 기준과 상반되는 것으로, 표준 모형의 범주에 있는 항목이어도 텍스트의 내용이 일반적 정보 전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분류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3급 행동문화에 포함된 건강 관련 내용

은 웰빙 현상, 다이어트, 건강식품 등인데 텍스트의 주제나 내용이 ‘바른 자세와 건강’, ‘건강과 운동’,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 등의 일반적 정보로 되어 있다면 항목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개별 항목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유학생활’이라는 주제의 텍스트에서 외국인 등록증 받기, 교통수단 이용 방법, 쓰레기 버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을 개별 텍스트로 분류한다.

이와 반대로 같은 항목에 여러 예시를 제공하는 경우는 하나의 항목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속담’이라는 단원의 텍스트에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속담을 제시한 것은 ‘표준 모형’의 5급 행동문화에 제시된 ‘속담’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분류한다.

3.2. 분석 결과 및 제언

3.2.1. 전체의 검증

앞 절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의 의미 분류 기준에 따라 총 4종 12권 교재의 113단원 464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290개의 문화 항목을 추출하였다.

<표 3> 한국어 교재별 듣기/읽기 텍스트와 문화란의 문화 항목

| 유형 | A | | | | B | | 총 |
|--------|-------|-----|-------|-----|-----|-------|-----|
| | 가 | | 나 | | 다 | 라 | |
| 교재 텍스트 | 듣/읽 | 문화란 | 듣/읽 | 문화란 | 듣/읽 | 듣/읽 | |
| 일반 텍스트 | 60 | 1 | 52 | 5 | 33 | 23 | 174 |
| 문화 텍스트 | 82 | 33 | 38 | 25 | 67 | 45 | 290 |
| | 115 | | 63 | | | | |
| 총 텍스트 | 142 | 34 | 90 | 30 | 100 | 68 | 464 |
| | 176 | | 120 | | | | |
| 문화 비율 | 65.3% | | 52.5% | | 67% | 66.2% | |

조사 결과는 분석 전 설정한 전제의 검증 및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을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예시와 비교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먼저 분석 전 설정한 전제의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문화란’을 별도로 배치하고 있는 교재가 그렇지 않은 교재보다 실제로 문화 항목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위 표에서 A 유형으로 표기된 ‘가’와 ‘나’ 교재가 단원 내에 별도의 ‘문화란’이 있는 교재이고, B 유형으로 표기된 ‘다’와 ‘라’ 교재는 ‘문화란’이 없는 교재이다. 네 교재의 문화 항목 출현 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65.3%, 52.5%, 67%, 66.2%로 비교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문화란’이 있는 교재가 전체적인 텍스트 수가 많아 개별 항목 수 비교에서는 우위를 나타냈으나 ‘문화란’이 따로 없는 교재라 하더라도 ‘문화란’이 있는 교재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문화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문화란’이 있는 ‘나’ 교재의 항목 반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두 번째 전제의 검증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문화란’의 내용이 한국문화 관련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은 각 교재의 구성의 차이에 변수가 있다. ‘가’ 교재는 단원별 ‘문화산책’ 코너에서 학습자가 교사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관련 활동을 제시하고, 부록의 ‘문화해설’란에서 다시 목표 문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제공하고 있어 문화 내용으로 분류된 항목이 많았던 반면, ‘나’ 교재는 ‘문화란’이 있는 대신 듣기/읽기 텍스트에서의 문화 항목 출현 비율이 42%로 오히려 다른 교재보다 낮았고, ‘문화란’의 내용도 단원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화 정보의 성격이 아니라 ‘쉬어가기’ 코너 형식으로 단원의 주제, 기능, 어휘 등에 대한 부수적 정보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어 문화 내용에서 제외된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 교재와 ‘라’ 교재는 전체 텍스트의 수도 적고 문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화란’도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전달 텍스트의 길이가 길고 텍스트에 포함되는 문화 항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문화 항목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다. ‘문화란’ 코너의 배치로 인해 교재에

제시되는 개별 문화 항목의 수가 많아지더라도 ‘문화란’의 내용이 모두 문화 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문화란’이 없더라도 정보전달 텍스트로서 읽기/듣기 텍스트의 내용을 잘 구성하면 효과적인 문화 교육 텍스트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듣기/읽기 텍스트 및 ‘문화란’의 내용이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문화 항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표 3>에서 제시한 총 464개의 텍스트로부터 추출한 290개의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의 범주 구분에 따라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의 대분류 및 하위분류 별로 나누어 본 결과, ‘표준 모형’의 범주에 포함되는 항목은 245개로, 약 84.5%의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한국문화에 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 항목 범주에 포함시켰으나 표준 모형에는 해당 문화 항목이 포함될 만한 범주가 없었던 45개의 추가 문화 항목에 관해서는 뒤의 내용 분석 단계에서 다시 언급한다.

<표 4>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중 표준 모형 문화 범주에 포함된 항목

| | A | | B | | 총 |
|----------|----|----|----|----|-----|
| | 가 | 나 | 다 | 라 | |
| 성취문화 | 14 | 1 | 8 | 6 | 29 |
| 행동문화 | 38 | 20 | 15 | 18 | 91 |
| 정보문화 | 41 | 34 | 32 | 18 | 125 |
| 총 문화항목 수 | 93 | 55 | 55 | 42 | 245 |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재의 급별 문화 항목이 ‘표준 모형’에서 제시한 급별 분류에 부합하는가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표 4>에서 제시한 총 245개의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의 급별 분류 내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5〉 한국어 교재 문화 항목의 표준 모형 급별 분류¹⁰⁾

| | 1 | 2 | 3 | 4 | 5 | 6 | 7 | 총 |
|----------|-------------|-------------|---------------|---------------|-------------|---------------|--------------|---------------|
| 성취 문화 | 0 | 3 | 2 | 5 | 2 | 10 | 7* | 29(12%) |
| 행동 문화 | 3 | 19 | 26 | 15 | 14 | 5 | 9* | 91(37%) |
| 정보 문화 | 0 | 27 | 11 | 22 | 33 | 31 | 1 | 125(51%) |
| 총 | 3 (1.2%) | 49 (20%) | 39 (15.9%) | 42 (17.2%) | 49 (20%) | 46 (18.8%) | 17 (6.9%) | 245 (100%) |

위와 같이 한국어 중급 교재를 대상으로 교재 내의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의 급별 분류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1급과 7급을 제외하고 대체로 각 급별로 성취문화, 행동문화, 정보문화의 비율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중급 교재의 문화 내용이 표준 모형의 중급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는 교재의 교수요목이 아직까지 주로 문화 중심이 아닌 언어 중심(주제, 기능, 문법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문화 내용은 그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히 배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재의 문화 내용이 반드시 표준 모형의 급별 분류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가 여전히 언어 중심 구성에서 부수적 정보로 작용하

10) 김중섭(2010)에서는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를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6등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변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최상급인 7급을 추가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최상급의 설정으로 등급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분석 대상의 층위 연계가 다소 어긋날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표준 모형의 급별 분류를 수평적으로 대응시켜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11) 7급 성취문화와 행동문화 항목 수에 영향을 준 것은 전체적으로 텍스트 수가 많고 문화 항목의 수도 많았던 ‘가’ 교재의 특징 때문이다. ‘가’ 교재는 다른 교재에 비해 단군신화, 설화 등 문학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것이 7급 성취문화 항목으로 분류되었고, 기후변화, 일회용품 사용 등의 환경문제는 행동문화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그외 교재에서는 7급 항목의 분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고 있다는 것은 현행 문화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금까지 분석 전 설정한 전제를 검증해 본 결과, ‘문화란’이 있는 교재가 없는 교재보다 총 텍스트의 수가 많고 텍스트에 제시된 문화 항목의 수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문화 항목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화란’이 있는 교재가 ‘문화란’을 제외한 듣기/읽기 텍스트에서는 ‘문화란’이 없는 교재보다 문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 ‘문화란’의 내용 중에서도 언어 지식의 부수적 정보로 제공된 경우 문화 항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듣기/읽기 텍스트 및 ‘문화란’에서 추출된 문화 항목은 84.5%가 표준 모형의 범주에 들어 있었으며, 급별 분류에 있어서는 표준 모형의 중급 단계 항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급(2급)이나 고급(5, 6급)으로 분류된 항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항목별 내용 분석 및 표준 모형과의 비교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별 교육 내용과 표준 모형에 제시된 유형별 예시의 비교를 통해 교재와 표준 모형의 차원에서 각각의 특징적인 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서 <표 5>의 급별 분류 중 중급(3, 4급) 단계로 분류된 한국어 교재의 81개 항목을 표준 모형의 3, 4급 내용으로 분류해 본 결과, <표 6>과 같은 분포로 나타났다. 행동문화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이 42개로 가장 많았고, 정보문화 유형이 31개, 성취문화 유형이 7개 순이었으며, 표준 모형의 단일 소분류에 무려 18개의 교재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 개의 교재 항목도 포함하지 않는 소분류도 7개나 되어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분포가 고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은 교재 항목을 포함한 소분류는 행동문화 유형의 학교생활(18)이며, 역시 행동문화 유형의 한글과 한국어(10), 민간신앙(6) 등이 뒤를 이었고, 정보문화 유형의 친목모임과 동호회(6), 관례/혼례(6) 등도 높은 분포를 보였

다. 동아리, 축제, MT, 장학금, 아르바이트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항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분석 대상 교재가 주로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기관의 교재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학교생활 관련 항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학기관 교재로서의 특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 한글과 한국어 관련 항목에서는 비유 표현 등 한국어 표현에 관한 지식적 요소와 함께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외국어, 비속어, 은어, 속어, 신조어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민간 신앙 관련 항목에서도 역시 다리 떨기 등의 금기 행동과 함께 남자(여자) 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선물, 시험 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징크스)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등 주로 한국 대학생의 흥미와 생활상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친목모임, 동호회 관련 항목에서는 커피숍, 짬뽕집 등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장소에 대한 정보와, 취미 동호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관혼상제 문화 중에서는 젊은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결혼식 관련 내용이 많은 반면, 외국인 학습자가 실제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장례/제례에 관한 항목이 거의 없는 점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표준 모형에는 있으나 실제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분류 항목도 7가지나 되었다. 그 내용을 <표 7>로 정리하였다.

<표 6> 표준 모형의 3-4급 문화항목 중 교재에 제시된 항목

| 유형 | '표준 모형'의 교수 내용 | | | 출연 횟수 | 교재 내용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
| 성취 | 한국의 예술과 문학 | 예술 | 전통/현대 음악 | 2 | K-pop, 클래식과 비보이 |
| | | | 전통/현대 공연 | 2 | 궁중음악 공연, 난타 |
| | 한국의 문화유산 | 문화재 | 무형문화재 | 1 | 전통 혼례 |
| | | | 유형문화재 | 2 | 예술품(조각보), 해시계와 물시계 |
| | | | 이름과 호칭 | 0 | |
| 행동 | 한국인의 생활 | 언어 생활 | 한글과 한국어 | 10 | 비유 표현, 동물 비유(소-농경사회), 어우미, 줄임말(2), 외국어 사용, 비속어(욕)(2), 은어 속어 사용, 신조어 |
| | | | 가정생활 | 0 | |
| | | 학교생활 | 18 | 장학금 신청, 동아리, 소개팅(2), 대학 축제, 수학여행과 MT, 아르바이트, 장래 고민(유학, 취직), 직업 장담, 취업 준비(3), 취업 면접(3), 자기소개서(2), 인턴사원 | |
| | | 직장생활 | 3 | 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한국의 직장 문화, 회사 문화 | |
| | | 여가생활 | 3 | 월드컵, 봄은 악마, 응원 문화 | |
| | 한국인의 가치관 | 가치관 | 건강 | 0 | |
| | | | 민간신앙 | 6 | 곰기 행동(다리 떨기)(2), 정크스(머리 감기), 곰기 선물(2), 곰기 음식(시험) |
| | | 사고방식 | 과학기술의 발전 | 2 | 인터넷, 디지털 세상 |
| | | | 통신 | 0 | |
| | | | 일상생활 | 0 | |
| 한국인의 생활 | 여가생활 | 진목모임/동호회 | 6 | '방'문화(다방, 커피숍), 찜질방, 한국의 등산 문화, 동호회 가입, 여행 동호회, 동호회 소개 | |
| | | 공동체 생활 | 0 | | |
| | 사고방식 | 빨리빨리 행동 | 1 | | |
| | | 민간신앙 | 3 | 곰과 해몽, 꿈과 복권, 태몽 | |
| | | 지리 | 0 | | |
| 정보 | 한국사회 | 사회 | 대표지역과 축제 | 3 | 경주(불국사, 첨성대)(2), 에밀레 등 |
| | | | 공휴일 | 2 | 국경일(개천절, 한글날)(2) |
| | | | 주요절기 | 4 | 한국의 절기, 단오, 풍습, 복날 먹는 음식(삼계탕, 갈비탕), 보신탕 문화 |
| | 한국인의 가치관 | 지리 | 관혼상제 | 6 | 결혼식에 갈 때 어울리는 옷차림(2), 결혼 계획, 결혼 준비(물, 쌀), 결혼 풍습, 배우자의 조건 |
| | | | 장례/제례 | 1 | 장례식 복장 |
| | | | 교육제도 | 0 | |
| 한국인의 문화유산 | 교육 | 교육열 | 1 | 대한학교 | |
| | | 상징물 | 4 | 아리랑(2), 진돗개, 무궁화 | |

<표 7> 표준 모형 3, 4단계 문화 항목 중 중급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항목

| 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예시 |
|------|----------|--------|------------|--|
| 행동문화 | 한국인의 생활 | 언어 생활 | 이름과 호칭 | · 친가 및 외가 친척관계 · 친족 호칭(친가, 외가의 가족 호칭) |
| | | 공동체 생활 | 가정 생활 | · 방문 예절(집들이 선물) |
| | 한국인의 가치관 | 가치관 | 건강 | · 웰빙 현상, 다이어트, 건강식품 |
| 정보문화 | 한국인의 생활 | 일상 생활 | 경제 활동 | · 재래시장(남대문, 동대문, 경동시장, 가락시장, 자갈치시장 등) · 흥정과 덤 · 지불 방법(현금, 카드, 일시불, 할부) |
| | | 공동체 생활 | 가정 생활 | · 가족형태(대가족, 핵가족/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덩크족 등) |
| | 한국 사회 | 지리 | 한국의 지리 /지형 | · 한국의 위치 및 지리적 특징 |
| | | 교육 | 교육 제도 | · 대학 입학시험, 학군 · 외고, 특목고 |

먼저 한국인의 가족 및 친족 호칭과 가정생활에 관한 항목이 없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 대부분이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중인 만큼 실제 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적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외고, 특목고 같은 항목 역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현행 한국어 교재가 대학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점 외에 여전히 보편적 문화 지식으로서의 정보보다 실제 언어 능력 습

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어 중급 교재에서 문화 내용으로 추출된 항목 중 표준 모형의 전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¹²⁾

먼저 성취문화의 경우를 보면, 한국어 교재에는 여가 활동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서울의 지역별 정보(한강공원, 놀이공원, 인사동, 코엑스, 올림픽 공원, 홍대 앞, 북한산 등)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표준 모형에서 여가활동은 4급에서 스포츠 활동, 응원(붉은 악마) 등의 예시만 제시되어 있었고, 성취문화로서의 수도 ‘서울’에 관한 항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 한국어 교재에서는 동해(정동진, 삼척), 통영, 지리산, 강화도, 광릉 수목원 등 한국의 다양한 지역 및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개별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만한 항목이 거의 없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 외에 지역 정보로는 ‘지역과 축제’, ‘각 지역의 유명 음식’ 등과 연관된 항목만 제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교재에서 제주도의 ‘정낭’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표준 모형에서 제주도 관련 항목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관한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성취문화 유형으로서의 대중문화 항목을 살펴보면, 최근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른바 ‘한류’의 영향을 받은 세대인 만큼 한국어 교재에는 한류 문화로서의 한국 드라마, TV 프로그램, 광고,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다양한 항목이

12) 표준 모형 자체가 기존 교재의 문화 항목 분류 및 제시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표준 모형 공표 이후에 개발된 교재의 문화 항목 중 표준 모형에 없는 항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단순히 어떤 항목이 교재에는 있고 표준 모형에는 없다는 식의 단편적 비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표준 모형’ 자체가 완벽하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향후 ‘표준 모형’을 포함한 한국문화 항목에 관한 연구에서 추가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필요에 따라 참고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개되고 있었는데, 표준 모형의 성취문화에는 대중문화 항목이 없고 문화재, 예술(음악, 공연) 등의 분류만 있었다.

다음으로 행동문화 유형을 보면, 앞서도 언급한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재에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전공 선택, 단과대학과 전공, 대학 입학 준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표준 모형에는 주로 대학 입학 이후의 생활과 취업 관련 내용이 주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 한국어 교재에는 어린이날, 스승의 날 등의 기념일에 따른 선물 문화와 젊은이들이 각종 기념일을 챙기는 문화, 수험생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엣, 포크 등) 등 기념일이나 선물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는데, 표준 모형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고 시험 날 몸을 씻거나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금기 행동만 제시되어 있었다.

정보문화 유형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어른과 이야기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선후배가 같이 식사할 때는 선배가 음식 값을 내는 문화 등 문화권에 따른 예절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었는데, 표준 모형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생활 예절에 관한 항목이 없었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는 한국의 패션(옷, 신발 살 때 다른 나라와 다른 치수 체계), 한국인이 좋아하는 머리 모양 등 패션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에서 '패션'과 관련된 것으로는 초급에서 전통의상(한복)에 관한 것, 중급에서 관혼상제 등의 행사 참석 시 적합한 옷차림, 고급에서 한국인의 가치관-미(美)의 기준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만 제시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한국 음식과 요리법, 119, 식목일, 쇼트트랙 등 한국의 스포츠, 주의 표지의 의미(표지판, 그림, 기호 등), 신문고 제도, 상상 속의 동물 '해치', 언어생활(사투리) 등 한국어 교재 내에서 한국문화의 특징적인 요소의 하나로 제시된 여러 항목들에 대해 표준 모형에서는 해당하는 유형 및 분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3.2.3. 제언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된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과 비교했을 때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분포가 고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항목에 관한 문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로 분석 대상 교재가 주로 한국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 을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기관 교재이다 보니, 학교생활과 관련된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가 학교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외적인 문화 항목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기에, 교재에 좀 더 다양한 문화 항목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 표준 모형에는 있으나 실제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분류 항목이 7가지나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언어 능력 습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주로 문화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편적 문화 지식으로서의 정보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 능력 습득을 위한 문화 지식의 필요성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음을 볼 때, 앞으로 한국어 교재에서도 보편적 문화 지식 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중급 교재에서 문화 내용으로 추출된 항목 중 표준 모형의 전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항목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실제 한국어 교재와 표준 모형에서 차이를 보인 문화 항목들에 대해서도 문화적 중요도를 판별하여 표준 모형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유형별로 범주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고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라는 개념의 광범위함과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생명력을 감안할 때,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화 항목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을 통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분류를 바탕으로 현행 한국어 교재 중 중급 단계의 교재를 대상으로 문화 항목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항목의 제시 현황 및 체계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화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로 듣기/읽기 텍스트와 ‘문화란’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화 항목을 추출하였으며, ‘문화란’이 있는 교재와 없는 교재의 문화 항목 반영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란’이 있는 교재가 없는 교재보다 총 텍스트의 수가 많고 텍스트에 제시된 문화 항목의 수도 많았지만 전체적인 문화 반영 비율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문화란’이 있는 교재의 듣기/읽기 텍스트가 상대적으로 문화 항목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란’의 내용도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교재 내에 ‘문화란’이 따로 있다고 해서 문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과 표준 모형의 문화 항목 비교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재의 듣기/읽기 텍스트 및 ‘문화란’에서 추출된 문화 항목의 84.5%가 표준 모형의 범주에 들어 있었으며, 급별 분류에 있어서는 표준 모형의 중급 단계 항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급(2급)이나 고급(5, 6급)으로 분류된 항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모형의 급별 분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급별 교수요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된 기준인 만큼 한국어 교재의 문화 항목 또한 학습자의 수준별 언어 능력에 따라 좀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비교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된 문화 항목을 표준 모형의 분류 및 예시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분류 기준 및 세부 내용에서 다수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표준 모형의 항목 분

류 체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어 교재에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과 반대로 한국어 교재에 실제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모형에서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 항목의 분류 및 항목별 내용 제시 방식을 고찰함에 있어 실제 자료 분석을 토대로 한국어 교재의 문화 내용 및 표준 모형의 문화 분류의 개선점과 보완점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를 표본으로 분석조사를 시도해 보았으나, 현재의 표준 모형이 ‘국제 통용’을 전제로 개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국외 발간 교재에 대해서도 확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문화 교육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부분은 후행 연구 과제로 기약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현화(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 권성미(2013),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0,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동환(2008), 「공유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한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 _____ (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 김수진(2010), 「문화간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현(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한글학회.
- 김중섭(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_____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창원(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능력의 평가 방안」, 『한국어 교육』 1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한)국어 문화 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향」,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박영순(2003), 「한국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

- 학』 23, 이중언어학회.
- 배현숙(2002),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현황 및 문제점」, 『이중언어학』 21,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2001),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송용실(2012), 「한국어 문화교육의 실태와 교육 방향 연구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교육 관점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문천(2012), 「통합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학습 활동 분석」, 『Journal of Korean Culture』 21,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 오지혜(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 문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0,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13), 「한국어 학습자 대상 문화 교육 전문 교재 개발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201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이미향(2010), 「학습자의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 고찰」, 『이중언어학』 42, 이중언어학회.
- 임경순(2009), 『한국어문화교육을 위한 한국문화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장윤정(2002), 「한국어 교재에서의 문화 교육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항록(2002),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_____ (2004a), 「한국 언어 문화와 한국어 교육」,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_____ (2004b),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한국언어문화학』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황인교(200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문화」, 『이중언어학』 35, 이중언어학회.

Moran, Patrick R. 저 정동빈 외 역(2004), 『문화교육』, 경문사.

2. 기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 한국어』 3A-B, 4A-B, (주)투판즈, 2015.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재미있는 한국어』 3-4, (주)교보문고, 2013.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3A-B, 4A-B,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2013.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함께 배워요 한국어』 3-4,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Abstra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ultural Items of
Intermediate Korean Textbooks and the Standard
Model and th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 Focused on Reading and Listening Texts and 'Culture'
Columns of Intermediate Level -

Ryu Hyun-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ltural items of Korean textbooks to find an efficient way of selecting the cultural items and of presenting the cultural contents in Korean textbooks.

The need for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increasing with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Although this need is prevalent, it is still not enough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from current Korean textbooks because there is not an approved standard to select the cultural items and the educational method for the cultural contents.

This study tries to examine how Korean cultural education is going by extracting cultural items from reading and listening texts and the 'Culture' columns of Korean textbooks of intermediate level and to find an efficient way of selecting the cultural items and of presenting the cultural contents in Korean textbooks. The result suggests some points to be modified or improved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ttempts to find an efficient way for Korean cultural education by analyzing the vast real-world dat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anticipated future studi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r proficient communi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Another expectation is that there will be many other studies in Korean cultural education focused on various subjects such as how to select the essential items of Korean culture and how to teach the detail items.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culture, cultural education, communication skills, cultural literacy, Korean textbook, cultural items, item classification

이 논문은 2016년 10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11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11월 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